

보 도 자 료



- ◆ 2024. 10. 9. (수) 배포
- ◆ 총 3쪽 (본문 2쪽, 붙임 1쪽)

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서태선 기지운영실장	☎ 032-770-8510
강민구 홍보실장	☎ 032-770-8631
김창석 홍보실 선임행정원	☎ 032-770-8637

“세종대왕님, 남극 세종기지 다녀오겠습니다”

지난 8일 인천 송도 극지연구소에서 남극기지 월동연구대 발대식 개최

- 극지연구소(소장 신형철)와 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한글날 하루 전인 8일(화) 인천 연수구에 있는 극지연구소에서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- 발대식에는 고립된 남극에서 약 1년간 임무를 수행하는 남극세종과학기지 제38차 월동연구대(대장 김원준)와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제12차 월동연구대(대장 장성호)가 참석했으며, 극지연구소·해양수산부 관계자 등이 이들의 도전을 응원했다.
- 남극세종과학기지는 1988년 킹조지섬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 과학기지로, 기후변화의 영향에 민감한 해양과 생태계 등을 연구하고 있다. 기지 이름은 한글 창제를 비롯해 과학연구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긴 성균 세종대왕에서 유래됐다.
- 올해 10주년을 맞은 남극장보고과학기지는 동남극 북빅토리아랜드 테라노바만에 있는데, 남극대륙 해안가라는 지리적 특징을 활용해 내륙 진출로를 확보하는 한편, 우주, 천문, 빙하, 운석 등 대륙 기반 연구를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.

- 월동연구대는 기지당 18명으로 구성되며, 남극 하계기간이 시작되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남극 현장연구 활동과 기지운영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.
- 월동연구대는 기지 생활을 위한 훈련과 소양 교육을 받은 다음, 장보고 월동대는 11월 3일, 세종 월동대는 11월 29일에 각각 출국할 예정이다.
- 남극 월동 경험이 3회 있는 베테랑들이 기지당 3명씩 소속돼 월동연구대의 빠른 임무 교체과 적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.
- 신형철 극지연구소 소장은 “변화하는 기후환경 속에서 월동연구대의 활동은 지구의 미래를 밝히는 극지 연구의 단단한 초석”이라며, “남극으로 파견되는 모든 월동대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1년 뒤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붙임 1.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발대식 행사

붙임 1

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발대식 행사

